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 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 남 신 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30일 창간

1946년 10월 26일 창간 | 제 2938호 Honam Shinmun 2020년 6월 16일 (윤달 4월 25일) 화요일

'보성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도전한다

고려시대 최고 명차 '뇌원차' 복원 역사성 · 독창성 확보

8월말까지 신청서 작성 마무리 11월 농림부에 제출 계획

대한민국 최대의 차 산지이자, 차 산업 중심지인 보성군은 지난 12일 '보성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단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보성군은 웅치면 약산마을 일대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는 고려시대 최고의 명차 '뇌원차'를 복원해 역사성과 독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1천여 년 넘게 이어져 온 보성전통차농업은 역사성과 자연 생태적 가치, 수려한 경관, 차의 우수성 등에서 보전할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복원된 보성 뇌원차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웅치면 약산마을 일대의 가을평 다소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소는 고려시대 국가에 차를 공납하는 기관이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기정 교수팀은 보성지역 자생차 지역(101개소)중 득량 다전마을 차나무(430년)와 회천 일림산 주변의 자생차를 채취해 지난 4월 10일 뇌원차를 제다했다. 뇌원차는 사각형태의 떡차로 일반 떡차와는 다른 제다 공정을 거치며 첫맛은 구수하고 부드러우며 끝 맛은 깔끔하고 향기롭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뇌원차는 왕실에서 사용했던 차로 진다 의식뿐만 아니라 죽은 신하에게 내리는 장례용, 거란에 보내는 예물용,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고려 최고의 명차로 다른 전통차와 차별성을 지녔기에 그 원형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일은 역사 · 문화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군은 이번 보고를 통해 8월말까지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 하고, 금년 11월까지 농업유산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출된 신청서는 국내 세계중요농업유산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FAO에 제출되고, GIAHS 기술자문위원의 현장 방문과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 집행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천년 전 고려 최고 명차였던 뇌원차를 올해 열리는 제8회 보성세계차엑스포에서 일반인에 소개할 예정"이라면서 "보성 뇌원차가 미래 천년의 차 역사를 잇고,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만습지에서 멸종위기종 '저어새' 20마리 관찰

갯벌 생태계 건강성 대표…작년부터 개체수 증가 향후 주목

순천시는 지난 13일 천연기념물 205-1호 저어새 20마리가 순천만 갯벌에서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저어새는 황새목 저어새과에 속하는 조류로 몸길이는 70 ~ 80cm이다. 세계적으로 약 4천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다.

전 세계 개체수의 90%가 인천 남동유수지 등 서해안의 무인도서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로 겨울은 주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에서 난다.

저어새라는 이름은 주걱처럼 생긴 부리를 얕은 갯벌의 물 속에 넣고 좌우로 휘휘 저어 물고기, 새우, 게 등의 먹이를 찾는 습성 때문에 붙여졌다.

갯벌 생태계의 건강성을 알려주는 저어새과 조류는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가 있다. 저어새는 여름철새이며, 노랑부리저어새는 겨울철새이다.

그동안 순천만에서 주로 관찰되던 종은 천연기념물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로 매년 140여 마리가 월동하였으나, 저어새는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3 ~ 10마리 내외가 관찰되곤 했다. 그러나 2019년 18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20마리까지 관찰되어 향후 개체 수 증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순천만습지는 찾아온 저어새 및 다양한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탐방객들은 순천만 습지 홈페이지로 들어와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봉선시장에 내년까지 106대 주차빌딩

광주 남구 봉선시장에 지상 2층 규모 주차 빌딩이 들어선다.

광주 남구는 2021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 20억2000만원을 들여 봉선시장 공용주차장에 106면 규모의 주차빌딩을 신축한다고 15일 밝혔다. 남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도 제5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주차장 신축작업은 올해 하반기 본격화한다. 남구는 7월 국비 교부를 신청한 뒤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 주차빌딩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안을 바탕으로 2021년 1월 공사에 착수해 12월 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구는 주차 빌딩이 완공되면 기존 44면이던 주차 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 봉선시장과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봉선시장은 도심권에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전통시장으로, 최근에는 동화축제 개최 등 이색 마케팅으로 경쟁력까지 더해져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봉선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전남 농가수 14만4천가구…총 가구 20% 농업 종사

지난해 12월 기준 전남의 농가수는 14만4000가구로 총 가구의 19.5%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농림어업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남의 농가는 14만4000가구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17만6000가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농가 비율은 총 가구의 19.5%를 차지하면서 10가구 중 2가구가 농업에 농사하고 있었다. 전국 농가 비율은 5.0%로 100만7000가구가 농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농가인구수로는 전남은 29만8000명으로 총 인구의 16.8%를 차지했다. 전국 농가인구 비율은 4.3%로 224만5000명이다.

농가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대부분 2인 가구며, 전남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0.7%였다.

전남의 전업농가 비율은 60.1%며, 경영형태별로는 논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민정 기자